

##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적 도움요청태도 간의 경로 검증 Paths from Self-Esteem to Professional Help-seek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최 정 아\*

경일대학교\*

Choi jung-ah\*

Kyungil Univ.\*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문적 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아존중감, 자기은폐, 우울, 도움요청태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구 및 경북 지역 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그 적합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와 우울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은폐는 우울에는 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 도움요청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요청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관련된 함의가 제시되었다.

### I. 서론

대학 입학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으로서, 대학생들에게 기대와 희망 뿐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 시기에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utter & Sroufe,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도움요청(help-seeking)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도움 요청이란 문제나 걱정을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1], 공식적 또는 전문적 도움요청은 사회복지사, 심리사, 가정의, 교사 등과 같은 전문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2]. 특히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있어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을 통해 그러한 문제가 경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요청태도에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전문적 도움요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함의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대구 및 경북 지역 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남학생은 149명(48.9%), 여학생은 156명(51.1%)이었으며, 1학년은 조사대상자의 26.8%, 2학년은 28.4%, 3학년은 30.4%, 4학년은 14.4%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7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공계열(15.3%), 예술계열(4.9%), 의약학계열(4.6%), 기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3.1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SE(Rosenberg Self-Esteem Scale)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829이었다. 우울은 DASS(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s)의 우울 하위 척도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874이었다. 자기은폐는 SCS(Self-Concealment Scale)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853이었다. 도움요청은 ATSPPHS-S(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hort Scale)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6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20.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델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b	$\beta$	SE	t
자아존중감	→ se1	1.000	.732		
	→ se2	1.431***	.919	.139	10.325
자기은폐	→ sc1	1.000	.751		
	→ sc2	1.205***	.930	.126	9.546
우울	→ dep1	1.000	.806		
	→ dep2	1.225***	.856	.113	10.817
도움요청	→ hs1	1.000	.740		
	→ hs2	.691***	.552	.097	6.224
	→ hs3	.669***	.607	.106	6.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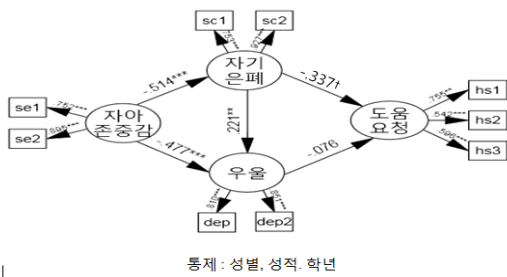
$\chi^2(df;p)=30.023(21; .092)$  TLI=.978 CFI=.990 RMSEA=.037

\*\*\*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은폐, 그리고 전문적 도움요청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p<.1,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 그림 2. 구조모형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자기은폐에 각각 부정적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자기은폐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은 자기은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은폐는 전문적 도움요청태도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은폐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요청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IV.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전문적 도움요청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 결과, 자기은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요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의 향상 뿐 아니라 자기은폐 수준의 감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1] Morrison, G. M., Laughlin, J., San Miguel, S., Smith, D. C., and Widaman, K. "Sources of support for school-related issues: Choices of Hispanic adolescents varying in migrant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6, No.2, pp.233-252, 1997.

[2] Raviv, A., Maddy-Weitzman, E., and Raviv, A. "Parents of adolescents: Help seeking intentions as a function of help sources and parenting issues", Journal of Adolescence, Vol.15, pp.115-135, 2000.

[3] Morrison, L. L., and Downey, D. L. "Racial differences in self-disclosure of suicidal ideation and reasons for living: Implications for train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6, No.4, pp.374-386, 2000.